

Nursing Newsletter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식지

발행인 | 박연환

편집인 | 이경숙

편집조교 | 이은비

Oct 2023.
가을호



간호가 여는 건강한 미래
Passion & Intelligence

고난을 이기고 희망을 연 100년
미래 간호를 향해 비상하소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Contents

1.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인터뷰 (1) 최스미 교수 정년퇴임 기념 인터뷰	01
교수동정 인터뷰 (2) 김성재 교수 정년퇴임 기념 인터뷰	03
02. 2023학년도 제6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05
03.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	06
04. 2023학년도 1학기 교수-학생 간담회	06
0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협의회	07
06. 2023년 임상간호학과 운영위원회	07
07. 연구실 탐방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감염관리연구실	07
08. 교수동정 및 직원동정	08

2.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2023학년도 간호플러스 세미나	09
02. 2023학년도 수요학술 세미나	09
03. 2023학년도 검무연구원 연구 동향 세미나	09
04. 2023학년도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10
05. 2023학년도 여름방학 통계특강 개최	10
06. 2023학년도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사업	10

3. 간호학교육연수원 소식

01. 2023 서울대학교 간호학교육연수원 8월 공개강좌	11
02. 2023 하계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	11

4. BK21 미래간호인재양성사업단 소식

01. 2023년 2학기 BK21 우수연구인재 Fellowship 장학생 선발	12
02. 2023년 1학기 BK21 Global Visiting Fellow 해외연자 선발	12
03. 2023년 2학기 지원대학원생 선발 예정	12

5. 학부 소식

01. 제32대 학생회 활동	13
02. 동아리 탐방 : 여우별	16
03. 2023학년도 국제협력본부지원 UIC 간호대학 하계 연수	16
04. 학생이야기 (1) 19학번 이가영	17
학생이야기 (2) 20학번 우영미	18
학생이야기 (3) 18학번 유창민	19

6. 대학원 소식

01. 2023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20
02. 국제학술대회 참석 명단	21
03. 수상실적 및 연구 지원금	21
04. 졸업생 교수 임용 현황	21
05. 대학원생 이야기 (1) 석사 21학번 김다인	22
대학원생 이야기 (2) 박사 21학번 안중근	23

7. 동창회 소식

01. 2023년도 제71회 정기총회와 신입회원 환영식	24
02. 동문동정	24
03.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2023학년도 2학기 장학생 명단	24
04. 동문이야기 (1) 임정현(19졸)	25
동문이야기 (2) 박현애 명예교수 수상소식	26

8. 간호대학 발전기금

01. 발전기금 출연 내역	27
02. 발전기금 안내	28
03. 발전기금 참여 방법	28

간호대학 소식 ①

2024년 2월 퇴임을 앞둔 우리 대학 김성재 교수와 최스미 교수의 특집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지난 40여 년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느낀 소회와 제자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한다. 최스미 교수의 인터뷰는 지도학생 김소연 학생이, 김성재 교수의 인터뷰는 지도학생 김미숙 학생이 진행하였다.

| 교수동정 인터뷰(1)

- 최스미 교수 정년퇴임 기념 인터뷰

학력

1980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1984	버지니아대학교 간호학 석사
1990	버지니아대학교 생리학 박사

주요 경력

1980-1981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간호사
1982	미국 버지니아대학교병원 신경과 간호사
1989-1990	미국 UMDNJ 약리학 Post Doctoral fellow
1993-1998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998-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06-2010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소장, 간호대학 IRB 위원장
2010-2020	American Stroke Association 간호분과 파트 학술 위원
2014-2015	한국기초간호학회 회장
2012-2015	Asian Nursing Research 편집위원
2017-2018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인터뷰 질문

교수님께서 지난 40여 년간 간호학자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이화여고)에 다니면서 막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중에 간호사인 고모님과 사촌 언니를 보며 자연스럽게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모님께서 간호학자의 길을 걸으시는 걸 보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최연순) 간호학을 계속 공부하게 되었고 늘 제게 연구에 몰두하고 연구의 보람과 기쁨을 느껴보라는 격려를 해주신 것이 용기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석사까지 간호학을 전공하시고 생리학 박사를 취득하셨는데 생리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주로 뇌졸중, 뇌전증 환자를 돌보면서 더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그러려면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 쌓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70여명의 석사과정생 중 생리학 점수가 늘 최고여서 생리학 교수님께 칭찬을 들었는데요(웃음). 그 인연으로 간호학 전공자이며 생리학 박사인 Dr. Parson 교수님의 연구 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을 통해 간호 생리학자의 필요성과 진로, 그리고 간호 생리학자로서 느낄 수 있는 보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어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Dr. Parson 교수님은 Head injury 환자에 대해 연구하셨는데 그 당시에 신경외과에 본인의 연구를 위한 환자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뇌손상 환자의 EEG와 다양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셨고 저도 그런 연구환경에서 배우며 공부하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교수님께 별 도움이 안 되는 조교였지만 교수님께서 늘 잘 한다 칭찬해주셨습니다.

석사졸업 후 Dr. Parson 교수님께서 생리학 박사과정에 들어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배우기를 조언해주셨고 다시 연구자로 함께 일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학 박사 대신 생리학 박사과정으로 진로를 정했고 그 후 교수님께서 아리조나 간호대학 학장으로 가시게 되어 같이 연구할 기회는 결국 얻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교수님께서 영양학, 약리학, 해부학, 병태생리학 등 기초과목들을 오래 강의하셨는데 이러한 과목들이 갖는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간호학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기초간호학의 매력은 간호 실무의 근간이 되는 지식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기를 늘 요구해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제 의도를 이해해주었던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간호학자로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일원으로 계신 동안 어떠셨나요? 또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시면 이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의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있기까지 학교를 이끌어 주신 선배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초간호학 분야를 개척하신 최명애 명예교수님 덕분에 저희 대학이 기초 간호교육의 발전과 기초간호학 교수요원 양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호과학연구소 소장 임기 중인 2007년에는 간호대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관악캠퍼스에서 개최하였는데 당시 윤순영 학장님께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학술 위원으로 수고하셨던 정재원, 박연환 교수의 열정과 노고 또한 잊을 수 없네요.

분명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존경하는 후배 교수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학교와 간호학 발전을 위해 나누었던 진지한 토론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자고 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점도 오늘까지 오는 데에 도움이 되었겠죠?(웃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연구가 있으신가요?

그동안 제 연구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과의 협력과 도움이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K 핵심단장으로 '뇌졸중 회복 방안 연구'를 할 때 동물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험실을 빌려주셨던 서울대 피부과 박경찬 교수님, 연구원으로 동고동락했던 대학원생들(박경애 가야대학교 교수, 이희주 상명대학교 교수, 박명숙 건국대학교 교수, 이정희 초당대학교 교수, 전상은 계명대학교 교수, 유종원 Rush University 교수)에게도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연구하며 낙담할 때 힘을 주셨던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의 신경과, 신경외과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에 참여해주셨던 환자와 가족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교대근무 간호사의 건강과 이직 의도에 대한 첫 중단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송경자 간호본부장과 이제 환자가 아닌 우리 간호사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실제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쁩습니다. 연구 결과, 간호사들은 입사 6개월 때 이미 피로, 수면장애, 우울 같은 신경심리학적 문제들을 겪고 있고 18개월 후까지도 이러한 증상이 지속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이

직 의도와 이직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중단연구에 동참해 준 지도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간호인으로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인간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간호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간호학을 접하기 시작한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과 같은 간호학자를 꿈꾸는 대학원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탐구심과 호기심, 그리고 관찰력을 유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생리학 전공을 선택하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귀국 후에는 왜 간호학 박사를 하지 않고 생리학 박사를 했냐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임용 과정 중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었기에 크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또한 무엇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폭넓은 교우관계를 쌓고,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제 지도학생들에게 석사과정 후 국외유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관점,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언어권에서 공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든 간호학자로든 보다 풍부한 자산을 갖게 되는 기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을 목소리 내어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졌을지라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피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은퇴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춤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춤추며 신나는 노후를 즐기고 싶네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였는데 아마 내년에는 음대생이 되어 또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①

| 교수동정 인터뷰(2)

- 김성재 교수 정년퇴임 기념 인터뷰

학력

1981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1984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정신간호학 석사
1996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정신간호학 박사

주요 경력

1981~1984	서울대학병원 간호사
1984~2000	청주과학대학 교수
2000~2007	강원대학교 교수
2007~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07~2009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
2015~2016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2016~2017	한국정신간호학회 회장
2018~2019	대한스트레스학회 이사장
2017~20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인터뷰 질문

교수님께서 40년 이상을 간호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처음 간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서울대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가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제가 활동했던 동아리인 불교학생회에서 팔정도(八正道)라는 8가지 바른 삶의 길을 배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정도 중 정명(正命)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명(正命)이란 바르게 생명을 유지하는 길을 말하는데, 이는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직업 선택에 해당됩니다. 나의 직업이 내 영과 육을 살리는 에너지원이니까 내 직업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지요. 살상 무기를 제조하는 직업이나 다른 사람의 손실이 나의 이득이 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정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유지되는 나의 생명은 신성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른 계기는 동아리에서의 봉사활동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봉천 7동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1970년대 말의 봉천동은 판자촌 지역으로 매우 열악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혈압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던 가정방문과 건강교육, 구더기가 가득한 공중화장실 청소와 소독, 컴컴하고 눅눅한 방에 앉아 듣던 어르신들의 끝없는 삶의 하소연이 생각납니다. 또한 매해 여름방학에 강원도 횡성에서 일주일간 봉사활동도 생생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기는 대학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호학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간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스승님들께서 이끌어주신 대학원에서의 공부가, 간호학 전공자로서 학문하는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학부 때는 잘 알지 못했던 간호철학과 정신 및 다양한 간호이론 및 간호 연구방법론 등을 배우면서 간호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교육과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간호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간호학의 다양한 분야 중, 특히 한국에서는 불모지였던 중독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봉천7동에서의 봉사 활동하면서 불행과 빈곤 속에서 피폐해진 취약 계층들의 삶 속에 알코올중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알코올중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4학년 정신간호학 실습 때 제가 담당했던 환자가 알코올중독자였습니다. 그 환자가 술을 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퇴원했던 환자가 실습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입원했습니다. 높은 학식과 강한 의지로도 해결되지 않는 알코올중독의 모습을 보았었고, 술 문제를 지닌 대상자 1명이 변화된다면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4~6명의 삶이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는 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중독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서 덤벼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논문을 작성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코올중독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이라 정신병원 입원 기간이 7~8년 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술 마시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인 병원을 선택할 만큼 중독 행동의 변화는 어려운 것이었지요.

교수님께서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중독영역에서 리더로써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리더로써 활동할 수 있던 것은 중독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중독분야 전문가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도였는데, 전문가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어 중독전문가 협회가 자연스럽게 다학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정신보건정책 차원에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알코올중독재활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술지원단이 발족되면서 알코올중독 전문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국립정신병원의 알코올중독 병동에서 매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알코올중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련 연구와 중독자 자조 집단과 연계한 지역사회 활동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중독문제에 관한 관심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책을 출판하고 해외 연수 등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10년 이후 국내에 도박중독이 이슈화되었을 때 도박중독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였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했어요.

교수님께서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병원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하시고, 회복자상담가 육성을 위한 활동과 같은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간호학은 실무중심 학문이기에 간호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모든 실천적 활동을 모두 간호 실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내가 간호 실무를 모르면서 혹은 실무자의 핵심 역량이 없다면, 과연 교육자로서 내가 전달하는 지식과 기술은 허황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간호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간호 실천에 더욱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중독 행동의 변화는 시작보다는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조 집단의 활성화와 회복자상담가 연계와 육성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정신간호대상자의 실제 삶에 뿌리를 둔 현실적인 간호 실천에 관심이 있었기에 제가 속했던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세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건 정신간호센터가 아니기에 아쉬움도 있지만,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세팅이 있었던 것

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일제 대학원생들은 임상을 떠났기에 이 지역사회 세팅은 정신 간호 요구를 지닌 대상자를 만나서 정신 간호를 수행해볼 수 있는 실습의 장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세팅에서 우리의 대상자들과 일상을 나누며 돌봄의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훈련받은 다양한 간호 중재를 적용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단없이 이 세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이어 지속된 학생들의 정신 간호 사랑과 탐구심, 그리고 열정 덕분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큼니다. 이 자리가 주는 역할과 요구를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선후배 교수님과 동료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덕분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도학생으로서 짧은 기간이나마 중독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 분야에서 대상자들을 만나고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를 믿으시나요? 어떤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으시나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믿지 않으면서 변화를 위한 일에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변화로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단주를 목표로 하면 좌절할 수 있어요. 단주를 유지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재발하는 대상자에게는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의 문제를 삶의 통합적 문제로 본다면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즉 목표하는 변화에 이르는 단계/과정을 변화를 예를 들어 위생상태가 좋아지고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등의 변화를 찾아내는 긍정적인 시선, 언젠가 변화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시선, 그런 간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가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누군가의 시선이 변화의 싹을 틔우고 물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고 소소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변화를 미칩니다. 또한 나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한다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을 체험을 토대로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상자도 생각해보면 5년 전, 7년 전의 그의 삶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수님께서 **정신건강 영역에서 다학제적 학술교류 활동들도 활발히 해오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다학제적 연구 및 학술 활동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중독분야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중독의 예방, 치료 재활 모델 구축, 중독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회

복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의 다학제 연구와 활동을 해왔어요. 두 번째로는 지도 교수님께서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정신 간호를 잘 할 수 있다.’고 이끌어주셔서 대한스트레스학회에서 부회장, 이사장 등을 맡으면서 오랜 기간 활동했습니다. 대한스트레스학회도 정신의학, 가정의학, 임상 심리, 한의학,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다학제 단체인데, 저서(스트레스 과학)도 공동 집필하였고 매년 학술대회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산림치유에 관한 산림청 과제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산림학, 산림치유학 전공자들과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산림치유지도사들과 협업해서 ‘숲을 포함한 자연 자원을 어떻게 건강 유지와 회복 및 증진, 질병 치유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중독과 스트레스 문제와도 접목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다학제 학술 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정신 간호 분야의 다양한 연구/교육활동 및 실무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4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운 좋게도 제가 그 당시 근무하던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간호사가 된 졸업생 제자와 함께한 사업은 지금도 뿌듯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빈곤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던 조현병 환자들의 삶이 정신보건 간호사들의 가정방문 중심의 사례관리와 지역 공동체의 인식개선을 통한 돌봄 협력망 구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정신보건에 관한 국가정책과 지역사회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2007년도에 선후배 교수들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상담사 인증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감염된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통은 무서운 질병과 불확실한 미래보다 차별과 낙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화가 어떻게 차별과 낙인을 만들어내는가를, 그리고 낙인과 차별을 감당하며 음지에서 질병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환자들의 고뇌와 강하게 부딪혔던 경험입니다. 그 밖에 많은 일화가 있지만 정신 간호학 전공으로 공부하고 역량을 강화해가면서 어제보다 나은 정신적 건강 상태를 지니게 된 저 자신과 학생들의 변화를 꿈고 싶습니다.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이들을 돕는 다양한 교육과 중재를 준비하고, 지식 축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협력하여 연구하는 이런 모든 순간과 과정들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신간호학 전공자로서 최고의 수혜자인 우리들 자신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란 무엇인가요? 앞으로 간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호학이 개별분과 학문으로써 다른 학문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간호가 지닌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의 핵심은 ‘건강 지향성을 지닌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답을 해본다면, 간호란 대상자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삶에 기반을 두고 건강 지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실

천적인 돌봄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호학 선배님들께서 전력으로 일궈놓으신 이 터전에서 2세대 후배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했었나를 이즈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회적 이슈가 된 간호법 관련한 일을 포함하여 간호의 사회적 위상을 생각하면 간호의 학문영역, 교육영역, 및 실무영역에서 진지한 논의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세대에 저는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침을 몰고 오는 빛나는 가능성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니 가당치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한마디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처럼, 이왕 하는 일이니, 그것이 임상 실무이던 정책 마련이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이던, 부디 온전히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이 시대에는, 돌봄의 가치를 믿으며 돌봄의 철학과 정신으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간호대학 소식 ㉔

| 2023학년도 제6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올해 임상 실습에 첫발을 딛는 3학년 55명의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제6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15:00에 간호대학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 실습을 시작하기 전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촛불점화와 선서를 하는 자리이다. 간호대학 박연환 학장님께 촛불을 이어받은 4학년 선배들이 3학년 학생들에게 촛불을 이어주었으며, 학생들이 다 같이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허영 회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연환 학장이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거행되지 못하거나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외부 인사를 모시지 않고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4년 만에 동창회, 학교, 병원 및 학협회의 내외빈을 모시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서생의 가족과 친구들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다.

크림전쟁 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간호 책임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이제 막 임상에 발돋움하는 간호대학 학생들이 훌륭한 간호사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학부생 수상내역

2023학년도 후기 졸업포상	수여자 이름
최우수상(총장상)	이가영
학생리더십상	최동빈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상	김도건

간호대학 소식 ④

| 2023학년도 1학기 교수-학생 간담회

2023학년도 1학기 교수-학생 간담회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에 간호대학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교수-학생 간담회는 간호대학 학장단 교수진 4명, 학과행정실 직원 5명, 조교 5명, 학생회장 과 부회장, 그리고 각 학년 대표 4명을 포함한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의 학생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먼저 신유나 학생회장의 간호대학 학생회 활동 내용 보고 및 추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간호대학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행사뿐 아니라 총학생회 연계 사업도 활발히 진행됨을 보고하였다. 그 후, 김현의 학생부학장의 학교 및 학생 지도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였으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학년 학생 대상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나이팅게일 선서식 등이 성황리에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각 학년 대표를 통해 수합한 강의 및 실습, 학사운영, 간호대학 시설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건의 사항 및 함춘학생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학과행정실 직원 및 학장단 교수진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 교환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함춘학생생활관 조교의 의견, 간호대학 조교 및 SHINE CENTER 국장의 의견을 학생회장 및 학생 대표에게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③

| 제 77회 후기 학위수여식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978명, 석사 1200명, 박사 656명 도합 2834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간호대학에서는 학사 11명, 석사 17명(임상간호학과 2명 포함), 박사13명 도합 41명이 학위를 받았다.

유홍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지식 자체를 넘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역량'을 강조했다. 이어 유 총장은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축사를 맡은 최재천 교수는 '공생'과 '협동'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한 모든 종(種)이 선택해온 생존 전략이라고 말하며, "부디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달라. 오로지 정도(正道)만을 걷는, 공정하고 따뜻한 리더가 돼 달라"고 했다.

우리 졸업생들이 학위 과정 중에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의 발전을 선도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간호대학 소식 ⑥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협의회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최완희 간호본부장의 개회사로 회의가 시작되었으며, 간호부문과 간호대학에서 지난 활동과 행사를 차례로 보고하고 2023학년도 하반기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알렸다. 임상간호학과 운영 관련하여 행정 업무 지원 확대, 초기 실습과정 개발에 대한 강사비 외 지원 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교수임상연수 운영 관련하여 병원 내 단순 견학보다 심화된 연수의 형태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⑥

| 2023년 임상간호학과 운영위원회

2023년 제2차 임상간호학과 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8일에 개최되었다. 임상간호학과에서는 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2월, 8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와 병원 양측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전문간호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교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운영위원장인 박연환 학장 외 13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1학기 임상간호학과 운영 보고를 바탕으로, 2학기 운영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운영위원들은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방안 및 임상 실습 운영 방안의 개선점에 관하여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2023년 3월 개정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운영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임상간호학과 교육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1학기 진행된 임상간호학과 첫 학위 논문 요지 발표 및 심사에서 지원자 2명이 모두 통과함에 따라, 2022학년도 후기(2023. 8. 29.)에는 임상간호학과 제1기 졸업생(김다인, 박은지)이 배출되었다.

지난 2021년 입학한 서울대학교 임상간호학과 1기 수료생 15명은 올해 제20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전원 합격(중환자 9명, 종양 6명)의 쾌거를 이루었다.

2023년 임상간호학과에서는 첫 졸업생 및 전문간호사를 배출한 뜻깊은 한 해이며, 앞으로 해당 학생들이 임상 현장에서 전문 간호를 실현하며 실무와 연구 모두의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대학 소식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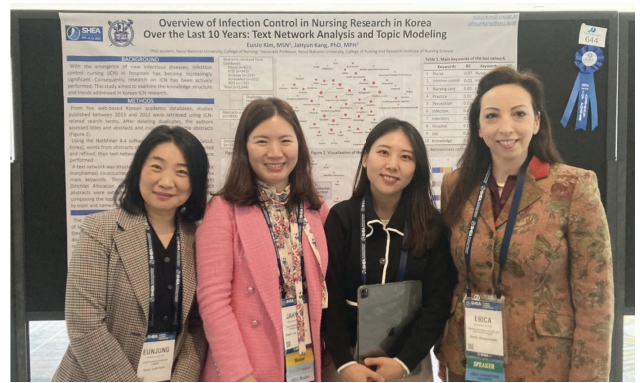
| 연구실 탐방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감염관리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감염관리연구실은 성인간호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모인 연구실이다. 감염관리 전문간호사이자 미국 Certified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 Emeritus인 강자현 교수님의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병원 역학, 의료기관 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중재 및 정책, 의료진 감염관리 술기 및 수행도 향상, 시뮬레이션 교육, 감염관리 관련 환자 안전 및 질 관리, 국제보건 등이다.

최근 감염관리연구실 연구과제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 12월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관리 국내외 문헌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과제의 목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고, 특히 국내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관리 중인 CRE 감염증에 대한 감염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국내외 CRE 발생 현황 및 추이, 위험요인, 국내외 CRE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및 대책 비교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수행하여 추후 국내 CRE 감염관리 중재 대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로 선정된 '의료인 안전을 위한 혁신적 개인보호구, 표준화된 평가 방법,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과 같은 신종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개인보호구 개발 필요성과 개인보호구 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는 의료인들의 실무 요구와 감염관리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혁신적 개인보호구를 개발하며, 의료진들에게 실제 개인보호구 사용에 있어 자가오염(self-contamination)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보호구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하여, 단계별 성과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감염관리 연구실에서는 정기적인 연구 미팅과 더불어 국내외 다양한 학회 참석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넓히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감염관리연구실 소속의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를 지원하였던 간호대학의 학부생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박사후과정 등 연구원 모집도 진행 중이므로, 감염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간호대학 소식 ⑧

I 교수동정

- 수상내역

장선주 교수 : 26th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2023 - Outstanding Poster Presentation Award

우경미 교수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2023 Early Career Alumni Award Emerging Nurse Leader

I 직원동정

행정실

〈2023.4.1.임용〉 - 문혜린

조교

〈2023.7.1.재임용〉 - 신루희 조교 (기본, 통합)

부속실

〈2023.4.1.임용〉 - 류다솜

샤인센터

〈2023.9.1.임용〉 - 최유빈

BK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

〈2023.8.28.임용〉 - 김경주

2023년 4월 28일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우수 동문 시상식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우경미 교수가 2023 Early Career Alumni Award: Emerging Nurse Leader를 수상하였다.

우경미 교수는 그동안 가정간호(Home health care)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들을 다수 출판하였다. 특히, 가정간호 노트를 분석하여 증상을 조기 감지하고 환자의 특성을 식별하여 개인 맞춤형 간호 중재를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연어 분석법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활용하여 임상 간호기록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에서 추출된 환자 증상 요인을 포함한 질병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AI 분야 중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을 적용하는 등 간호 연구에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시도를 이어 왔다. 이런 도전 정신과 혁신을 인정받아 매해 수많은 컬럼비아대학 졸업자 중 우수한 한 명의 동문에게만 수여되는 간호 리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상을 토대로 우경미 교수가 더욱더 근거 기반 연구를 활용하여 임상 의사 결정에 기여하고, 간호 실무에 혁신을 이끌며 간호사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멘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①

| 2023학년도 간호플러스 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대학원생,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플러스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가 '나이를 이기는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간호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통해 노화와 돌봄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월 12일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부열 교수가 'Global Development Agenda: from MDGs to SDGs'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에게 간호학에서 접해보지 못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해 배우고 전 지구적 현안과 도전과제를 살펴보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9월 13일에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정봉근 교수가 '헬스케어 분야 소프트 로봇 기술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 강의를 통해 병원 임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 로봇에 대해 폭넓게 배워보고 간호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②

| 2023학년도 수요학술 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대학원생,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요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17일에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범 교수가 '스마트홈 헬스케어-독거노인의 일상 행동 변동성 측정'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간호학과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해 참가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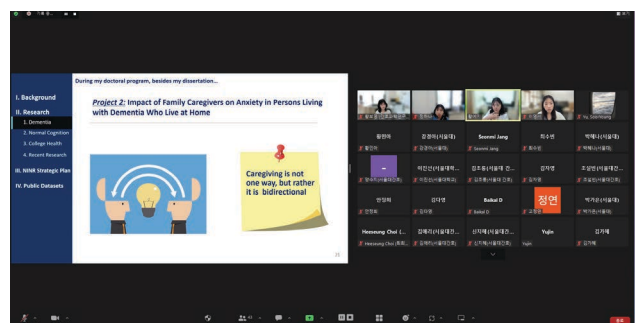
스마트홈의 원리와 기술에 대해 배우고, 스마트홈 헬스케어의 연구 동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6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승현 교수가 '도시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구와 질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도시의 특징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성격 및 경향을 정리해보면서 이와 연관된 질적연구와 다양한 질적 접근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③

| 2023학년도 겸무연구원 연구 동향 세미나

5월 24일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황예지 교수가 대학원생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겸무연구원 연구 동향 세미나의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Navigating Ways for Better Community Health: Understanding Psychosocial Health of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으며 황예지 교수 자신의 박사생 및 박사 후 연구원 시절 주로 진행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에 대해 강연이 이루어졌다. 황예지 교수는 한국의 학생들도 접근이 가능한 미국의 공공보건 데이터셋과 미국의 국립 간호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에서 제안한 2022-2026 연구 렌즈를 소개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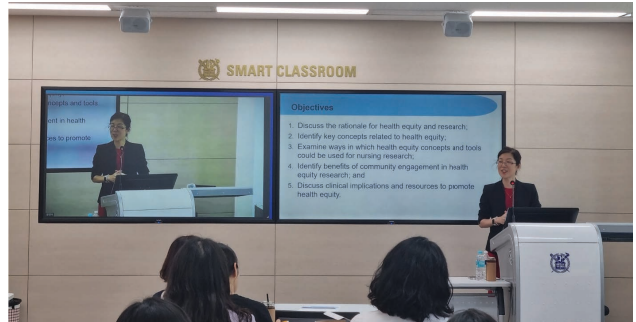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④

| 2023학년도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해마다 각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5월 31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혜라 교수가 'Health Equity across the Life Course -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Nursing Research'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 세미나에 총 61명의 교수와 학생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참석하였고, 건강 형평성에 대한 최신의 간호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개인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접근으로 시야를 넓혀 간호학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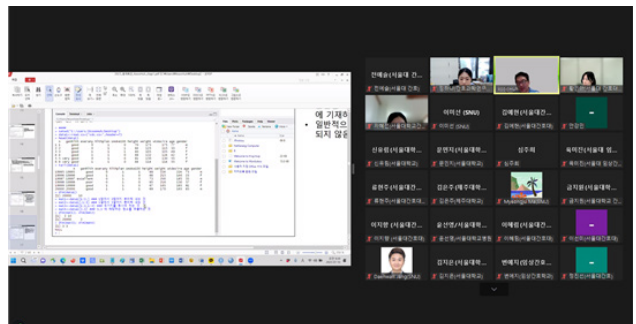
이후 7월 3일에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이혜균 교수를 초청하여 'Taking Control of Asthma - Supporting Self-Management with Mobile Technology Solutions for Adolescents with Asthma'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총 48명의 교수와 학생이 참석하였으며, 천식 환자의 모니터링이라는 구체적인 사례와 실제 디바이스 소개 및 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이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환자 간호에 있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최신 기술의 접목과 그 안에서 간호학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⑤

| 2023학년도 여름방학 통계특강 개최

간호과학연구소는 매해 여름방학에 대학원생들의 통계 능력 향상을 위해 통계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11일 이틀 동안 간호대학 허익수 교수가 학생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R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계분석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본 특강에 총 60명의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가하였으며 통계에 대한 이해와 R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였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⑥

| 2023학년도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사업

대학원생의 간호학문 탐구를 지원하고 연구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올해에도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정보학 등의 다양한 전공을 포함해 총 7개의 모임을 선정하여 모임별로 50만원씩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공 분야	구성원	주제
1	성인	김희정, 박유진, 정연우	독거노인 주제 연구모임
2	정신	김지우, 김리아, 박영은	대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가상현실 이완 프로그램의 효과평가
3	성인	최기원, 김주리, 정하나	교육전담간호사 경험 관련 근거이론 연구
4	성인	이상현, 이다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노인 수면 장애 완화 중재: 체계적 문헌고찰
5	정신	김잔디, 김지연, 신유진	한국어판 회복자본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6	정보	조보슬, 김정하, 김진솔	지역사회 간호학 텍스트마이닝 방법론 연구모임
7	정신	김지은, 김미숙, 김현숙	정신질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통합적 고찰

간호학교육연수원 소식 ①

| 2023 서울대학교 간호학교육연수원 8월 공개강좌

2023년 8월 21일(월), 23일(수), 양일에 걸쳐 간호대학 본관 4층 스마트강의실(401호)에서 2023년 8월 간호학교육연수원 공개강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개강좌에는 프로그램 A 'VR을 활용한 간호학 교육'과 프로그램 B '아동간호학 실습 운영 전략' 총 두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8월 21일 월요일에 진행된 프로그램 A에서는 첫 번째 강의로 서울 시립대학의 정형구 교수가 'VR의 가능성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VR를 활용한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의 사례에 대해 강의하였다. 두 번째 강의자는 우리 대학의 탁성희 교수가 '학부 노인간호학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습 사례와 전략'을 주제로 실제 우리 대학 학부 노인간호학 실습에서 진행하였던 VR 교육 사례에 대해 강의하였다. 세 번째 강의로 우리 대학의 최희승 교수가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VR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VR을 활용하여 간호사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호자 및 환자와의 의사소통 상황에 대해 미리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결과를 소개해주었다.

8월 23일 수요일에 진행된 프로그램 B에서는 첫 번째 강의로 우리 대학의 방경숙 교수가 '아동간호학 실습 운영 개요'를 주제로 아동간호학 실습을 운영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주었다. 두 번째 강의자는 우리 대학의 채선미 교수로 '아동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을 주제로 학부 아동간호학 실습에서 진행하였던 법의학과 관련된 아동 학대 시뮬레이션 실습을 소개해주었다. 세 번째 강의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의 수간호사인 박지선 박사가 '어린이병원에서의 아동간호학 임상 실습 지도'를 주제로 실제 병원에서 아동간호학 임상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서울대학교 간호학 교육연수원은 2019년 12월 개원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학 교육의 혁신과 미래에 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간호학교육연수원 소식 ②

| 2023 하계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과 간호대학이 주최하는 2023년도 하계 1급 정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연수가 2023년 7월 24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 3주간 실시되었다. 이번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ZOOM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작년과 달리 대면 연수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보건교사 70명(초등교사 39명 포함)은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1주간의 교양·교직과정과 간호대학에서 주관하는 2주간의 전공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70명의 보건교사 모두 최종 평가에 합격하여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보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이번 하계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실 운영에 관한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 연극, 그림책 등을 활용한 보건수업 설계에 관한 강의, 그리고 통상질환 관리와 보건실에서 흔히 쓰는 약물,



소아 당뇨의 상담 및 관리, 학교에서의 응급상황 대처 등 학교 현장 속 보건교사의 역할에 관련된 강의를 포함되었다. 더불어 학교보건의 역사와 방향성,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와 보건교사가 알아야 할 법적 대처 상황, 등 학교보건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주제와 학교보건의 동향을 잘 반영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되었다.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연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간호대학에서 진행된 전공 과정의 전반적인 연수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커리큘럼의 구성과 우수한 강사진으로 인해 수준 높은 연수였다는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직접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알찬 강의였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건교사 자격연수를 통해 보건교사들은 의료인이자 보건교사로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었다. 보건교사들은 1급 보건교사로서 함양해야 할 소양을 쌓아 보건교사의 역량을 개발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질 높은 보건교육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BK21 미래간호인재양성사업단 소식 ❶

| 2023년 2학기 BK21 우수연구인재 Fellowship 장학생 선발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 중 석·박통합, 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지원하는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 우수연구인재 Fellowship 프로그램 장학생에 본 사업단의 학생들이 선발되었다. 2023년 2학기에는 석·박통합과정생 김애리와 박사과정생 김은조가 선발되어 학기당 1,50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는다.

BK21 미래간호인재양성사업단 소식 ❷

| 2023년 1학기 BK21 Global Visiting Fellow 해외연자 선발

서울대학교 BK2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은 본부에서 지원하는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 Global Visiting Fellow 프로그램을 통해 Arizona State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의 Hyungsung Oh 교수를 초빙하여 간호학이 아닌 학문을 전공한 연구자와 간호학 연구자가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을 탐색하였다. Hyungsung Oh 교수는 2023년 6월 1일(목), 6월 8일(목), 양일에 걸쳐 'Breaking barriers: Delivering culturally competent COVID-19 testing where and when the community needs it' 과 'How to be an academia who makes a difference in the fight against health disparities (건강불평등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BK21 미래간호인재양성사업단 소식 ❸

| 2023년 2학기 지원대학원생 선발 예정

2023년 2학기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2023년 2학기에 선발된 지원대학원생은 석사과정생은 월 100만 원, 박사과정생은 월 160만원, 박사수료생은 월 130만원씩 장학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학부 소식 ①

| 제32대 학생회 활동

1. 1학기 NMP 사업

집행부 학생복지팀에서,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달간 선후배, 동기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NMP 행사를 진행합니다. 멘토 1명, 멘티 2명이 한 조가 되어 3번의 만남을 가지며, 마지막 3차 모임은 새로운 조를 편성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023년 간호대학 총MT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2일, 이틀동안 대성리 인근 펜션에서 재학생 86명이 총 MT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조별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활동, 식사 자리를 통해 학생들 간의 단합, 선후배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 1학기 기말고사 스터디그룹('모여봐요 공부의 숲' 사업)

시험기간에 학업 의지와 욕구를 높여주기 위하여 집행부 학술지원팀에서 스터디그룹을 개설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학업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직접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며, 일정 시간 이상 공부한 개인/팀에게 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팀별 미션을 통해 팀원들의 적극 참여와 공부 목표 달성을 도왔습니다.

4.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사업

시험기간에 학업으로 인해 피곤해졌을 간호대학 학우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학생회 학생복지팀에서 학기마다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1, 2, 4학년과 3학년의 시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로 간식사업을 진행 날짜를 다르게 하였습니다. 간식은 온라인 기프티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학기 기말고사 기간에는 대면으로 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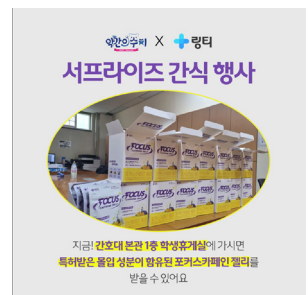
5. 3학년 나이팅게일 선서식 실습응원사업

2023년 4월 25일,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위해 실습에 도움이 될만한 용품을 선물하였습니다. 메모용 수첩, 널싱포켓, 릴홀더를 선물하였으며, 학생회장단의 손편지 스티커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6. 2023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 연합축제 (SMUF season2)

2023년 5월 15일, 관악캠퍼스 버들골 및 풍산마당에서 메디컬 연합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학 관련 계열 전공 단과대들이 연합하여 공연 및 부스 활동,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학과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로 링티측과 함께 학생들에게 젤리를 제공하는 작은 간식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7. 무료 기숙사 배달업체 '배달각' 연건캠퍼스 도입

함춘사 사생들의 식사가 어렵다는 문제에 깊이 공감하여, 2023년 4월 5일, 관악캠퍼스에서 진행하던 무료 기숙사 배달업체 시스템인 '배달각'을 총학생회, 의과대학 학생회와 함께 연건캠퍼스에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식사 선택지를 늘리고, 캠퍼스 내에서 더 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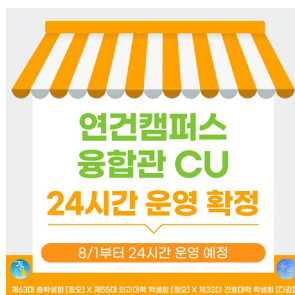
8. 2023년 봄축제 폐막제 셔틀 사업

2023년 5월 11일,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봄축제 폐막제 공연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 연건캠퍼스의 학생들은 관람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여, 당일 공연 종료 후에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를 잇는 셔틀 버스를 총학생회, 의과대학 학생회와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9. 함춘사 환경 개선 : CU 24시간 추진, 라면조리기 및 전자레인지 설치

함춘학생생활관 식사 환경 개선을 위해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융합관 CU 24시간 운영을 추진하여 8월 1일부터 무인 24시간 운영이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취사실 즉석 라면조리기와 전자레인지 추가설치를 통해 함춘사 거주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0. 연건 식사 제공 관련 논의 : 이동급식, 식권 선호도 조사

연건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의 식사 환경 개선을 위해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이동급식 및 연건 학생식당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실습기간에 배부되는 식권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1. 종강 반 자치 행사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1학기 종강을 기념하여 반대대표의 주도 하에 종강 반 자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반별 친목 도모와 더불어 학생들 간의 단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2. 로고, 마스코트 공모전

간호대학 로고 및 마스코트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학내 문제의식을 토대로 간호대학 학생들이 과감, 굿즈 제작 및 학생회 사업 등에서 간호대학을 표현할 수 있는 로고와 마스코트를 공모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응모작 중 1차로 투표를 통해 3개의 작품을 선발하고,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선발된 작품은 추후 간호대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공지할 예정입니다.



13. 입사자료 DB화 사업

재학생의 입사 준비를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본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입사전형에 대하여 4학년 선배들의 경험담과 입사 준비 과정 및 통계를 정리하고 카페에 업로드하여 재학생들에게 공유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14. 집행부 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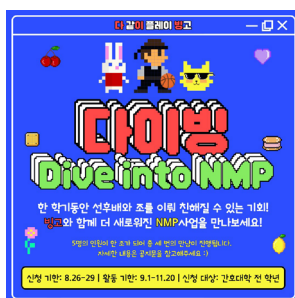
2023년 8월 26일 서울대입구역 주변 식당에서 학생회 집행부원 18명이 모여 집행부 LT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회의 역할 및 업무를 설명하고 각 팀별로 2학기 사업 계획 발표 및 집행부원 간의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5. 2학기 과목 OT

2학기 초에 1~3학년을 대상으로 선배들에게 전공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과목OT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전공 수업이 끝나는 시간대에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계획서에 더하여,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이미 겪어본 선배들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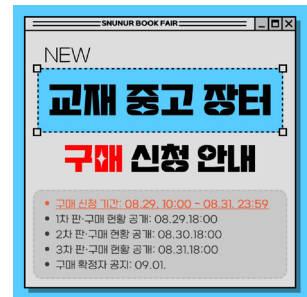
16. 2학기 NMP 사업(Dive into NMP)

집행부 학생복지팀에서,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달간 선후배, 동기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NMP 행사를 진행합니다. 1학기 NMP에 “빙고”라는 재미요소를 더하였습니다. 멘토 2명, 멘티 3명이 한 조가 되어 3번의 만남에서 빙고 내의 미션을 수행하며 간호대학 재학생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7. 2학기 NEW 교재장터

원래 진행되던 교재 기부 사업이 2학기에 새롭게 교재장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회를 경유하여 편리하게 더 이상 쓰지 않는 교재를 팔 수 있으며, 교재 구매자 또한 시중 가격보다 최소 50% 더 저렴하게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책정을 하였습니다. 판매 대금은 판매자에게 전달하며, 교재 판매 도모를 위해 추첨을 통해 교재 판매자에게 기프티콘 발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총 51권의 많은 교재 판매 신청이 있었습니다.



18. 제5회 간호인의 밤

2023년 10월 30일에 제5회 간호인의 밤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졸업생 선배분들을 초청하여 임상간호사, 공무원, 사업 및 해외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선배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취업 과정 등 재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9. 총학생회 연계 간식사업

총학생회 [정오]와 연계하여 연간캠퍼스에서 다양한 간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밀카 초콜릿 행사, 도시락 사발면 행사, 배달길 싸이버거 제공 행사 등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20. 기타 사업

매달 초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로, 사무팀에서는 매달 회계보고를 통해 학생회비 관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집행부 PR팀에서 매달 서울대학교와 간호대학 전반기 학사일정을 정리하여 배포하여 재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학생회의 중요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부 소식 ②

| 동아리 탐방 (여우별)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밴드 동아리 여우별입니다. 여우별은 간호대학 내에서 밴드 음악을 하고 싶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음악 장르는 재즈, 팝, 락, 메탈, R&B 등 가리지 않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팀을 꾸려서 공연을 준비합니다.

밴드 동아리 여우별은 2023년 여름 방학에 첫 출발을 하였으며, 앞으로 연건 대동제, 새내기 새로 배움터, 메디컬 연합 축제 등 다양한 축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학기 말에 동아리 자체 공연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동아리에서 모집 중인 인원은 합주를 할 세션 팀과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 기획팀 두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집 중인 세션에는 보컬, 기타(일렉기타, 통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가 있습니다. 공연 기획팀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거나 공연을 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부담없이 친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팀입니다.

여우별의 활동은 세션 클래스와 합주로 나뉩니다. 세션 클래스는 간호대학 내에 밴드 음악에 관심 있는 어떤 학생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아직 초보 단계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악기를 잘 다루는 학생들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주는 음악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직접 꾸려서 매주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공연이 아니더라도 부원들이 하고 싶은 음악이 있을 때 자율적으로 팀을 만들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부원들과 마음껏 끼를 펼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합주가 끝나면 뒤풀이를 진행하여 같이 연습하는 부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디션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악기를 처음 다루는 분들 또한 동기, 선배들을 통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세션 클래스를 통해 공연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간호대학 밴드 동아리 여우별로 오시면 됩니다.



학부 소식 ③

| 2023학년도 국제협력본부지원 미국 UIC 간호대학 하계 연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부생 6명(4학년 정은지, 우영미, 3학년 곽정훈, 주예원, 2학년 김민서, 정주는 학생)이 참여한 2023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 하계 연수프로그램이 6월 23일(금)부터 7월 14일(금)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첫 주차에는 University of Illinois Hospital & Health Sciences System에서 실습하며 현지 간호사들과 교류하고 임상 환경을 직,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2, 3주차에는 다양한 주제로 Global Health 강의를 수강하고 시카고 지역사회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 견학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으로, 2012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협약을 맺으며 시작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가졌다.

본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OIA)를 통해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 소식 ④

| 학생이야기 (1)

- 19학번 이가영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9일부로 간호대학 학부를 졸업하게 된 19학번 이가영입니다. 간호대학 뉴스레터의 한 페이지를 제 졸업 수기로 채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거창한 것 없는 이야기라 뉴스레터에 실릴만한 가치가 있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오히려 누구보다 평범한 이야기이기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지난 4년 반은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한층 성숙할 수 있었던 소중한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1학년 때 수강한 필수 교양 과목 '대학 글쓰기(인문학)' 수업을 통해 제가 대학 입학 전까지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가며 자신을 잘 몰랐고 보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를 알기 위해 많이 생각하였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도전하였습니다. 학업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면서도 동아리, 아르바이트, 학생회, 과외 및 멘토링, 교직 이수, 간호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증 취득 등 해보고 싶은 일,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로 학기와 방학을 꽉 채웠습니다.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바쁘고 알차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이 성공했던 것은 아니고, 저와 잘 맞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에서조차 분명 어떠한 교훈을 얻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저를 알아감에 따라 자신을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힘든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본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로부터 '같이의 가치'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대입 후 마주한 수많은 조별 과제, 병원 실습, 기숙사 생활, 동아리, 얼마 전 끝난 취업 준비 기간까지 대학 생활 중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입 전까지는 혼자가 익숙했습니다. 입시 공부는 개인플레이였고, 집-학교-독서실을 쳄바퀴처럼 돌던 생활 속에서 누군가와 같이할 일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사람 때문에 힘든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을 얻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전공 시험과 과제, 실습, 그리고 그보다 부담감이 컸던 졸업시험, 국가고시, 취업 과정마다 고비가 찾아왔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동고동락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할 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누군가와 함께 만든 순간은 뒤돌아봤을 때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절실히 느낀 4년 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제 대학 생활을 더 풍요롭게 채워준 소중한 동기들과 선후배님들, 따뜻한 지지를 아끼지 않고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대학생은 성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권리를 얻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저야 할 책임은 적은, 특권을 가진 신분이라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이 특권을 심본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0대, 대학 생활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정신적, 사회적으로 더 큰 사람,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여 졸업 후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훌륭한 자양분으로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이야기 (2)

- 20학번 우영미

2, 3, 4학년 각 2명, 총 6명의 학생이 미국의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간호대학에서 주관하는 2023 Summer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Program을 수료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희대, 계명대, 동아대, 그리고 일본의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UI Health 병원에서 실습하고, 다양한 주제의 국제 보건 및 미국 간호 체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된 프로그램이라 더욱 소중한 3주간의 경험이었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Global Health 강의가 아닌 병원 실습부터 이루어졌다. 프로그램과 병원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3일 동안 하루에 두 부서씩 총 6병동에서 실습했다. ICU, ER, OR, Step Down, Wound & Ostomy 등 여러 곳으로 무작위 배치되어 미국의 생생한 간호 현장을 관찰했다.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간호사가 환자와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최대 4~5명 정도이므로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병원의 통역 팀과 협업하여 수월하게 대화했다. 그리고 간호사는 물론 모든 의료진이 투약이나 치료 및 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와 의견을 물었다. 환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모든 병동에 큰오른셀이 있어서 환자에게 필요한 약 대부분을 처방에 따라 정확히 꺼내 쓸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투약 오류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병원 실습 종료 후 남은 2주는 이론 강의를 듣고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과 Juvenile Temporary Detention Center를 방문했다. 강의를 통해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성 소수자의 특성과 그들과 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및 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해보기도 했다. 또한, 차창 밖 조사를 하고 인구 조사 결과 자료를 수집하여 특정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요소들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Community Mapping을 수행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섞여 팀이 구성되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여러 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했다.

학교 일정이 끝난 후와 주말에는 시카고의 명소와 맛집을 방문해 시카고를 즐겼다. 한식에 진심인 우리는 한인 마트에서 장을 보고, 숙소에서 직접 냄비 밥, 떡볶이, 차돌박이, 삼겹살 등 다채롭게 요리해 먹기도 했다.

하루는 시카고 동창회 선배님들과 인디애나 별장에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친해져 프로그램 수료식 날에는 한자리에 모여 내일을 잊은 채 밤늦게까지 어울려 놀았다.

위와 같은 시카고에서의 경험은 간호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게다가 오랫동안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인연들도 가득 선물 받았다. 인생에서 추억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 기회를 준 UIC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감사하며, 3주 동안 함께 한 친구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 학우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UIC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I 학생이야기 (3)

- 18학번 유창민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18학번 유창민입니다. 먼저 제가 했던 글로벌사회공헌단 (이하 글사공) 활동을 주제로 간호대학 뉴스레터 기사에 칼럼을 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글사공에서 2018년 동계 우즈벡, 2019년 하계 우즈벡, 2022년 동계 요르단까지 총 3번의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 안에서 간호학도로서 했던 활동들과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먼 곳에서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느꼈던 인류애와 선교사분들에 대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그때 느꼈던 모든 감정들은 제가 의료선교를 꿈꾸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염려도 있었지만 그 마음 하나로 간호사를 꿈꾸었고 서울대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학년 겨울, 글사공 우즈베키스탄 봉사단에 지원하였습니다.

유아교육에서는 '튼튼한 몸'의 팀장을 맡아 질병 예방에 중요한 이 닦기, 손 씻기 습관과 신체활동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중요성을 느낄 방법을 고민하면서 세균과 천사 역할극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료나눔에서는 당뇨를 진료하시는 의과대학 교수님을 도와 혈당, 소변, 체중 등을 검사했습니다. 이외에도 메디 역할을 맡아 단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크게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사람들의 건강을, 작게는 단원들과 나의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첫 봉사였습니다.

파견 이후, 단기 해외 봉사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싶었고 후속 활동 팀을 꾸려 팀장에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나눔에서 많은 사람을 진료하기에 시공간적으로 부족하여 헛걸음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쉬움이 남아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현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처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당시에 했던 위생교육의 내용을 담은 벽보를 만들어 현지의 가정과 유치원으로 나눠주고자 국제우편을 부칠 때 부딪힘을 느꼈습니다.

이때 간호학과 2학년이 되면서 1학기에 많은 전공들을 배웠고, '영양과 식이', '건강증진행위개론', '기본 간호학 실습' 등의 교과를 통해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을 적용하면서도 비전공자인 단원들도 함께 생각하기 위해 질병의 1차 예방과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쉽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대상은 전 연령대로 고려했습니다. 최종 제목은 'Healthtagram', 내용 구성은 당뇨의 전반적인 설명, 예방에 필요한 식단과 운동을 담은 길거리 캠페인을 고안했습니다.

2019년 여름에 함께 가는 선생님들과 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진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선배 단원으로서 지원하고 다른 단원들의 모집 전부터 현장답사도 다녀오면서 윤곽을 잡아나갔습니다.

현지에 다시 가서 상상만 했던 길거리 캠페인을 실현하며 현지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캠페인은 지금까지도 글사공 우즈벡 팀의 공식 활동으로 자리 잡아 의료나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 봉사는 장기 봉사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며 우즈벡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전역 후 2022년도 1학기에 복학했습니다. 학업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한 학기를 보냈지만 가슴 한편이 비어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두 번 다녀왔던 기억이 지금까지의 저를 살게 했고 다시 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2022년 동계 요르단 활동에 지원하여 이번에는 팀장으로서 제 모든 경험을 녹이고 오고자 했습니다. 요르단에 관한 이야기는 글로벌사회공헌단 10주년 책자 및 교수사회공헌단 책자에 실린 제 소감문의 일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나에게 감동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껏 한눈에 예쁜 것들이 많았고, 한눈에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은 안 보면 그만이었다. 무언가, 누군가를 오래 자세히 보면서 이 시의 의미가 나에게 와 닿았을 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진정한 봉사에 취하면¹⁾ 깨는 법도 없는지, 나는 기어이 또 기꺼이 내 넋을 공헌 활동에 놓고 왔다. 당장 여름에 찾으러 가진 앓을 거다. 이번 활동에서 후회 없이 내 모든 것을 비우면서, 학부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느꼈다. 열심히 지금을 살다가 간호사 면허를 따고, 전문직으로서 내 넋을 찾으러 갈 것이다. '끊임없이 취하라!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그대 좋을 대로'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가 말했다. 아름다운 것에 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거 나하게 취할 자리를 깔아준 글로벌사회공헌단에, 나와 함께 한 잔씩 나눠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



1) 1차 공통교육에서 당시 글로벌사회공헌단 단장님께서 하셨던 '진정한 봉사는 중독성이 있다.'라는 말에 감명받았다. 중독된 듯이 다시 지원한 나의 상황에 딱 맞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독'에서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우면서 그 느낌을 살리고자 '취하다'를 택했다.



대학원 소식 ①

| 2023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 간호학 석사(17명)

이름	논문명
정홍주	암환자 자가간호를 위한 유튜브 건강정보 질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김예슬	소아 기관절개관 관리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지식, 자기효능감, 교육 요구도
양수지	노인의 이중 감각 저하가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임수민	뇌종양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과 영향요인 분석
하현아	경장영양을 하는 식도암 및 두경부암 환자의 영양상태와 건강 관련 삶의 질 분석
장하영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영역(patient zone)과 의료영역(healthcare zone) 인식조사
최수현	성인 중환자 욕창 발생과 위험요인
유슬기	혈액투석환자의 스티그마와 자기관리
이지연	전자의무기록자료 기반 심장수술 후 섬망 예측모델 개발 및 평가
임도연	제2형 당뇨병으로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노인의 복약순응도와 관련 요인 - 2017-2021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
이혜린	중환자실 간호사의 중심정맥관 번들에 대한 지식, 조직문화 및 수행도
차혜전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환자 간호 중증도(Nursing Intensity)
김소정	중환자실 간호사의 섬망 간호 스트레스 :폭력 경험과 자기자비를 중심으로
조보슬	개인생성 건강데이터의 임상 활용에 대한 의료인들의 인식 조사
이의진	첫 아기 어머니의 영아기 소화기계 건강문제 관련 지식 및 의료기관 이용
박은지	신속대응팀의 개입 유무에 따른 심폐소생술 환자의 임상 결과 비교
김다인	생애 말 기관내관 즉각 발관(immediate terminal extubation)과 이탈 후 발관(terminal weaning)에 대한 중환자실간호사와 의사의 인식

- 간호학 박사(13명)

이름	논문명
김은옥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자동감시 툴 개발 및 평가
정예슬	결혼이주인 가정 청소년 자녀의 가족 도움 경험
박은태	간호사인력의 지역불균형 수준과 관련요인
이미선	항암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환자안전향상을 위한 환자참여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평가
이진선	Cognitive frailty increases the risk of long-term care initiation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장상윤	포도일기를 활용한 모-태아상호작용 증진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배은정	Un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rs and related factors by gender and weight status: Resul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olescents
박한나	일차의료 간호사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이수진	국내 간호대학생의 국제보건역량 및 교육요구 분석
이예슬	Unmet expectations about surgical outcomes and post-donati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living liver donors
김소현	암성통증 환자 대상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 영향요인
김나리	소셜미디어 내 의료소비자의 환자안전 관심에 대한 구조적 토픽 모델링 분석
황민화	독거노인을 위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증진 고향압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학원 소식 ②

|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3 26th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Conference (EAFONS)	
Dietary behavior and its influencing factors of experienced shift work nurses: secondary analysis (포스터 발표)	김소연
12th IAGG Asia/Oceania Regional Congress 2023	
Effects of virtual reality based bathroom safety education for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with dementia (포스터 발표)	이은비(발표자), 탁성희, 최혜인, 이다연
What are the unique attributes of fear of falling? (포스터 발표)	이다연(발표자), 탁성희
Factors of willingness to pay for smart mattress in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brain and spinal disorders (구두 발표)	최혜인(발표자), 탁성희, 이다연, 이은비
Sigma's 34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Virtual conference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ulti-morbidity Treatment Burden Questionnaire (K-MTBQ) (구두 발표)	이지향, 이경숙
Scoping review of treatment burden in multimorbidity: definition to interventions (포스터 발표)	이지은, 이지향, 오은지, 신루희, 이경숙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Nursing & Allied Professions 2023 Congress. Edinburgh, United Kingdom	
Treatment burden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number of comorbiditi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young and middle-aged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comorbidities(구두 발표)	이지향, 이경숙
Blood pressure control and treatment burden from comorbidities (구두 발표)	이경숙, 이지향
44th Annual Meeting & Scientific Sessions of the Society of Behavioral Medicine. Phoenix, AZ	
Shared decision-making is essential to improve the adherence to self-care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comorbidities (포스터 발표)	이경숙, 이지향
The 19th World Congress on 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 – MedInfo 2023	
Prediction Model The Workplace Violenc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based on the Machine Learning (포스터 발표)	이형복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for family caregivers of dementia (포스터 발표)	임은영

대학원 소식 ③

| 수상실적 및 연구 지원금

지원금	수여자	전공
한마음 장학금	이숙영	아동간호학 석사과정
보건장학회 연구지원 장학금	이영서	지역사회간호학 석사과정
질병관리청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촉진 연구사업		
질병관리청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촉진 연구사업	이진선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BK fellowship 장학금 (1학기), 보건장학회 연구지원장학금	이하나	지역사회간호학 석박사통합과정
보건장학회 연구지원 장학금	김미숙	정신간호학 박사과정
수상 실적	수여자	전공
IAGG/ Outstanding Poster Presentation Award	이은비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대학원 소식 ④

| 졸업생 교수임용 현황

본교 대학원생 중 2023 상반기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제주대학교	김은주	지역사회간호학
안산대학교	배은정	간호학



대학원 소식 ⑤

| 대학원생이야기 (1)

- 석사 21학번 김다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석사과정을 졸업한 임상간호학과 중환자전문간호과정 1기 김다인입니다. 학부생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하여 간호의 길에 들어선 지 어느새 햇수로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큰 뜻 없이 간호에 첫발을 내디뎠던 제가 중환자실에 발령받았던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나빠지는 증상과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여 환자의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응급상황에서 흘리는 땀을 좋아합니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회복하여 병동으로 가는 환자들을 응원하고, 간혹 들려오는 그들의 좋은 소식에 감사하며,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의 편안함을 위해 노력하고, 그 가족들을 존중할 줄 아는 간호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선의만으로는 좋은 중환자실 간호사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실제 임상, 특히 중환자 간호와는 조금 동떨어진 수업에 괴리감을 느끼던 중,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전문간호사과정(1기)이 다시 개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성인간호학 석사과정을 자퇴 후 새롭게 임상간호학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총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통필수 13학점 이상, 전공실습 300시간 이상, 전문이론 10학점 이상의 수업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중환자 전문간호사 과정을 수학하는 2년 동안 10학점, 즉 300시간의 실습에 참여하였고,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총 28학점의 이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공통필수 과목을 통해 간호의 지식적인 측면을 배울 뿐 아니라 연구 역량을 키

우고, 임상에서 잊고 지내던 간호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이론 수업에서는 해당 분야의 의대/간호대 교수님들께서 최신 경향을 공유해주셨고, 전공실습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최신 지식이 병원 곳곳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과 실습을 통해서 제 안에서 흩어져있던 지식이 구조화되는 것을 느꼈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사 학위 논문을 실제로 작성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중환자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제 10년의 중환자실 간호사 생활에 대해 인정받은 듯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길다면 길었던 2년 반의 여정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저를 배려하고 응원해준 가족들과 병동 선생님들, 서로 힘이 되어준 동기들, 수업을 이끌어주신 모든 임상간호학과 교수님들과 임상 교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논문 심사를 맡아주시고, 중환자 과정의 운영을 담당해주신 장선주 교수님, 이경숙 교수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지도하느라 애써주신 고진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석사 학위와 전문간호사 자격을 얻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환자들에게 최고의 간호를 제공하고,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 봅니다. 책임과 자부심을 가지고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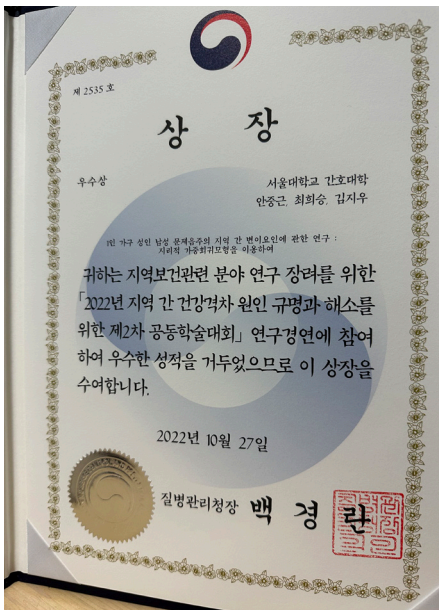
| 대학원생이야기 (2)

- 박사 21학번 안중근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정신간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안중근입니다. 매 학기 발간되는 간호대학 뉴스레터를 통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대학원 동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큰 힘이 되어주던 이 공간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연구자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해왔던 그 과정들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지도교수님이신 최희승 교수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게 BK21 미래간호인재 양성사업단 참여대학원생에 지원해보라는 말씀과 함께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서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큰 꿈과 열의를 가지고 박사과정에 입학하였기에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박사과정 첫 학기부터 BK21 미래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의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되어 매 학기 연구 계획서와 학습 계획 자가 평가서(Academic Study Plan)를 작성하며 연구 수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중견 연구의 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녀야 할 자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의 어느 가을날, 저는 박사과정 2학기에 접어들었고 마치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연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문헌 고찰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기분장애 환자의 자기관리를 측정하는 “mental health self-management questionnaire” 도구 개발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한국어판 도구로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에 연구실 선생님들을 한 명씩 설득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저는 동료 대학원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며 도구 개발 연구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사과정에 입학했던 첫해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 준 소중한면서도 가장 용기 있던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If opportunity doesn’t knock, build a door.’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말처럼, 도구 개발 연구 이후에도 저는 동료 대학원 선생님들과 연구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연구를 계획하며 주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 규명과 해소를 위한 학술활동 촉진’ 연구사업, 대한질적연구학회가 주관하는 연구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우수연구자상을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연구소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 사업에도 2년 연속 선정되어

지난 여름 방학에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및 수면 양상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반 이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중재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제게 큰 선물과도 같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지도교수님의 연구원으로서 진행했던 연구들과 동료 대학원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연구들이 SCI 저널에 하나씩 게재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BK21 대학원혁신사업단 콜로키움 우수대학원생으로 선발되어 영광의 순간 또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신청했던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에 선정되어 제가 그토록 진행하고 싶었던 연구를 하나씩 실현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론 실패하더라도 도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지도교수님께서 언제나 연구자로서 행하는 저의 모든 도전과 선택을 응원해주십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끝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손을 건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최희승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전과 선택에 있어 저를 믿고 언제나 함께해주는 소중한 대학원 동료 선생님들이 있기에 이 길이 결코 외롭게 느껴지지 않으며,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205호 연구실의 불빛은 가장 늦게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동창회 소식 ①

| 2023년도 제 71회 정기총회와 신입회원 환영식



4월 21일 동창회 정기총회와 신입회원 환영식 1부는 허영 회장의 개회사와 박연한 학장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갓 졸업한 신입회원의 밝은 모습과 동창회장의 유쾌한 진행으로 행사 내내 웃음이 가득했다. 2023년 1학기 장학증과 연구비 수여, 그리고 동창회장상을 받은 안가인은 선배님들의 자랑스러운 간호인의 역할을 본받아서 더욱 전문적이고 간호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입회원 대표인사를 하였다.

2부에서는 동창회와 교육연구재단의 회계, 사업보고 및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동창회장의 선출은 전원 만장일치로 허영 회장의 연임으로 이루어졌다. 허영 동창회장은 연임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주춤했던 여러 동창회 활동들을 다시 시작하여 오고 싶은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동창회에서 동기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동기 활동 지원을 받을 기를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6기가 행운의 기가 되었다. 당첨된 각 기에 지원금 10만 원씩 지원되며 추첨이 된 기들은 동기 모임 후 동창회보에 모임 후기와 사진을 신겨 된다. 이후 다과와 함께 선, 후배 간의 편한 대화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동창회 소식 ②

| 동문동정

신연희(88졸업) : 분당서울대병원 본부장 취임

박정선(90졸업) : 보라매서울대병원 본부장 취임

김명숙(89졸업) : 서울아산병원 부원장 취임

최완희(88졸업) :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취임

임은옥(89졸업)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간호대학장 임명

동창회 소식 ③

|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2023년도 2학기 장학생 명단

간호대학 동창회 교육연구재단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670만원을 모교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10명에게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과정	성명	장학금액
최애옥(50졸) 장학금	학사	김은주	100만원
동창회 장학금	학사	구수민	90만원
이윤경(69졸) 장학금	석사	김미경	70만원
이귀향 장학금	석사	이석희	40만원
이정자(63졸) 장학금	박사	권현상	40만원
이애주(69졸) 장학금	석사	심유진	40만원
이선옥(73졸) 장학금	석사	추빛나	40만원
김남련(56졸) 장학금	석사	박상요	50만원
허영(74졸) 장학금	학사	박채은	100만원
이광자(68졸) 장학금	학사	곽채린	100만원

동창회 소식 ④

I 동문이야기 (1)

- 임정현(19년도 졸업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부과정을 19년도에 졸업한 15학번 임정현입니다. 본교 뉴스를 요청받았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단지 졸업생 중 한 명으로서 졸업 후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졸업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64병동 간담체외과에서 2년 4개월 동안 외과 내 다양한 질환과 중증도의 환자들을 간호하며 임상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3교대 근무와 매일 치열하게 생사를 다투는 현장이 힘들긴 하였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빠르게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무사히 회복하여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로 연계되지 못하고, 특히 전담간호사의 교육을 받더라도 독거노인,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인슐린 투약, 장루 관리 등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가진 채 퇴원하거나 타 병원 회송 후 다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속적인



로 부족한 의료인력이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정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며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야에서 조금 더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관리학전공에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는 보건경제학1 연구실에 소속되어 석사과정 4학기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던 저는 보건경제를 공부하고, 국제보건이나 재정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임상과는 또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조원들과 함께 노숙인의 정신적 습관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막연히 생각하던 노숙인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삶에 대해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던 경험은 다양한 보건의료학적 문제들에 있어서 인과성 또는 상관성을 확인하는 보건학적 연구의 중요성뿐 아니라 필드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쳐내고, 적절히 정책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는 조원들과 학회지 투고를 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외 수업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발제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고찰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제도의 도입이 판매 및 서비스직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리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등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이처럼 소규모 연구를 진행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연구실 내 프로젝트로 외부 포괄적 가정간호 심장 재활 연구의 경제성평가 부분 위탁 연구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경제성평가와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하는 등 새롭게 다양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과정과 임상 경험은 저에게 큰 기반과 지식이 되었고, 이를 보건경제 분야와 접목하여 복합 만성질환에서의 의료비와 의료 이용을 주제로 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할 계획에 있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을 그만둔 이후 초중고 내 보건교사를 지원하는 학교보건 자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양이나 정신건강, 무분별한 약물 사용, 알레르기 등 성인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동 청소년기의 건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자해나 불안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단계의 과정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질 높은 보건교육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투자와 개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졸업 후의 삶은 간호대학 학부과정과는 또 다른 배움의 과정이었고,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시각과는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공부의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치료를 잘 해내서 사람들이 퇴원하는 것이 결말이 아니고, 모든 자원을 보건에만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쓰일 수 있었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생애 주기적 관점과 예방적 관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만,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다양한 고려가 요구되며 좀 더 많은 사람이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고민하며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원에 와서야 학부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걸,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후회를 하지만 임상을 경험한 후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외부 강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이 되는 정책적 연구와 실제 수립되는 정책, 반영되고 환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임상 현장, 다양한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지역사회 등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다양한 곳에서의 경험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여서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만 대학원은 진로의 끝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향하기 위한 기회 또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여전히 추후 진로를 고민 중이지만 임상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소, 연구 기관, 의료기기나 제약회사, WHO나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헬스케어 컨설팅 등 다양한 진로가 존재하기에 졸업을 앞둔 재학생분들이 충분히 탐색해보고 직접 많은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동문이야기 (2)

- 박현애 명예교수, IMIA François Grémy Award of Excellence 수상



지난 2023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의료 및 건강에 관한 제19회 세계 회의인 MedInfo 2023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명예교수가 IMIA François Grémy Award of Excellence를 수상하였다.

IMIA(세계의료정보학회, The International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는 의료, 생물 의학 및 건강 정보학 내에서 정보 통신 기술 사용의 모범 사례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강 및 생물 의학 정보학을 위한 세계 기구이다. IMIA François Grémy Award of Excellence는 2001년에 IMIA Medical Informatics Award of Excellence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상으로, 의료 정보학 분야의 연구, 교육, 개발 또는 응용 분야에서 의료 정보학에 대한 헌신과 업적을 통해 의학 및 의료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상된다.

박현애 명예교수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이자 시스템 의생명 정보학 연구센터의 연구자로 표준화된 용어와 어휘, 전자 건강 기록의 임상 모델 관련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 연구 주제는 낙상, 욕창 및 약물 부작용과 같은 환자 안전 문제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의료 분야의 임상 빅데이터 분석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뛰어난 연구성과를 남기며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2023년 3월 1일~2023년 8월 30일

개인		
김현의 교수	김숙영 (93졸)	안영숙 (69입)
박현애 교수	김승주 (69입)	양성심 (03졸)
설양조 교수	김씨래 (05입)	엄세옥 (73졸)
윤주영 교수	김영아 (88졸)	염미라 (89입)
이경숙 교수	김영옥 (69입)	오두남 (89입)
장선주 교수	김영희 (69입)	유숙자 (63졸)
조성현 교수	김용주 (73졸)	윤희정 (08졸)
최희승 교수	김정수 (89입)	이봉수
탁성희 교수	김정애 (69입)	이선민 (89입)
황예지 교수	김정희 (69입)	이선옥 (69입)
Kyung H. SUH (69입)	김지수 (89입)	이수정 (89입)
강경자 (99졸)	김철규 (93졸)	이수진
강미정 (93졸)	김현미 (89입)	이정호 (69입)
강선주 (19입)	김현순 (69입)	이주현 (89입)
강선희 (69입)	김희자 (69입)	이지윤 (93졸)
강채원 (73졸)	남궁상 (89입)	이혜경 (69입)
강춘자 (73졸)	류혜란 (93졸)	장혜경 (89입)
고명희 (73졸)	박명숙 (89입)	전숙희 (69입)
고순정 (69입)	박봉순 (69입)	전태선 (73졸)
공은희 (95졸)	박상연 (73졸)	정경희 (69입)
권순영 (69입)	박선희 (93졸)	정해미 (93졸)
권은정 (89입)	박숙희 (73졸)	정희선 (69입)
길경복 (69입)	박승화 (73졸)	조장봉
김가혜 (09졸)	박완임 (89입)	지수정 (89입)
김경 (73졸)	박은준 (93졸)	최덕순 (63졸)
김광희 (69입)	박한미 (89입)	최명자 (73졸)
김달숙 (74졸)	박혜순 (69입)	최영리 (89입)
김덕수 (69입)	박혜옥 (73졸)	최진주 (06입)
김도건 (16입)	백정미 (93졸)	허미옥 (89입)
김문숙 (91졸)	백혜옥	허정원 (69입)
김미형 (93졸)	서진 (56입)	현수경 (89입)
김숙 (89입)	손선행 (69입)	황선주 (73졸)
간호대학 1993년 졸업동기		
법인/기타		
MK 헤리티지		진아춘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 간호대학은 **2028년 관악캠퍼스 간호대학 건립을 목표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참여 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 농협 079-17-000136 (서울대발전기금)
- 신한 100-014-328209 (서울대발전기금)
- 우리 1006-601-280134 (서울대발전기금)

문의처: 간호대학 ☎ 02-740-8802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약정 바로가기
QR code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 바로가기
QR code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

간호대학은 연건캠퍼스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다학제-융합 간호연구 및 공공간호 복지아젠다 수행을 위한 환경조성과
내실있는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한 건립기금 모금에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식지

발행인 | 박연환

편집인 | 이경숙

편집조교 | 이은비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제 26호)